14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주 공과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 일꾼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유인물을 잠깐 보시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인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있었던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 유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단련하는 시험도 아니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보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소돔성에 있었던 롯은 아무 시험이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이 세상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서 세상 것에 유혹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높은 시험을 치룰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몇 가지 볼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세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 그것도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단련시키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 시험 이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실성을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 때 이 시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이것도 테스트죠?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지 기생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행함 삶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비천한 기생 출신이었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중)

18절을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행동 삶이 수반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적인 지식, 구원 연수, 직분이 아니라 바로 행동, 삶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이번 시험의 도구가 될 이삭을 삼중으로 반복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사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도대체 이해가 납득이 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살인이지 않습니까?

또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면 어떨까?

그리고 죽이고나서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야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뇌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 이삭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반드시 이 이삭을 살릴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가운데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확증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한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잠언 23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중)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네 지혜를 내게 주라, 네 달란트를 내게 주라, 네 혀를 내게 주라, 네 돈을 내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가장 아끼는 그 무엇에 반드시 손을 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최고라고 여기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선이 아니면 먼저가 아니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좇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거였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했다는겁니다.

왜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모든거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조차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게 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최고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유인물을 보시면요

인간의 최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삶의 만족을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둘째 자리에 놓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비참한 삶에 처하게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적은 건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여야된다. 라는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인물 뒷장을 보면요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에게 손해와 손실을 끼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과 우리에게 손해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즉 명령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불평, 불만도 없었고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드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불순종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아들, 종은 데리고 갔지만 아내 사라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 사라와 의논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간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상담과 교제가 필요하지만 일단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서면 우리가 해야될건 오직 순종입니다.

다른 의논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 책임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성경 찾는 중)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까지 이 사마리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많은 풍성한 열매를 사마리아에서 거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그런겁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냐 즉각적인 적극적인 순종을 할 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잠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